



### 큰스님 법어는 너무 어려워요

1년에 몇 차례 불교계 신문과 중앙 일간지에 실리는 큰스님들의 법어는 우리 불자들의 가슴을 뚫어지게 해 준다. 흔탁하고 어수선한 세속의 바람 속에서 푸른 산, 맑은 물처럼 살아가는 수행자를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

게다가 그 수행자가 바로 내가 믿는 종교의 큰 어른이시니 회색 가사를 입은 스님 사진을 보기도 해도 흐뭇해지는 불자는 나뿐만이 아니리라.

그러나 법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대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공감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니 그 은근한 맛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계에 퍼져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니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 한문투 법어 대중적 이해 곤란 쉬운 우리말로 큰 가르침을...

설상가상으로 한시(漢詩)로 내려주실 면 한자를 공부하여 그 깊은 문자의 맛을 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더욱더 생경하기만 하다.

분명 불교계 신문과 중앙일간지에 실린 것으로 보자면 법어라는 것이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선승만을 위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법어를 대하면 왠지 그분들만의 세계에서 통하는 암호인 것만 같아 섭섭하다. 큰스님들의 법어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

람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진 가장, 내 가족의 행복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주부,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살을 결심하는 청소년, 병석에 누워 죽음을 저편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무수한 사람을 죽여 놓고는 어떻게 참회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더욱 성을 내고 있는 범죄자 등 불쌍하기 그지없는, 2004년도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일연속극의 대사처럼 편하고 쉬운 내용이 아니면 아예 알아볼 마음조차 내지 않는 우리 불자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가르침처럼 훌륭한 말씀은 천박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바라문들이 쓰는 고상한 언어로 전해져야 한다'고 견지하던 두 비구를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부처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체 사장 이 직원들에게

"이번에 ○○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라고 소개하거나 할머니가 손주를 달래면서 "큰스님 말씀처럼 우리 ○○도 훌륭한 사람 되어라"라며 큰스님의 법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자는 물론이요 불교를 비난하거나 무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까지도 모두가 '아, 불교는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도록 큰스님들의 말씀은 이 현실에 간접하고 솔직하게 전해져야만 할 것이다.

■ 이미경(동국대역원 역경위원)



# '교구마다 노인복지시설' 가시화

## 조계종 10개 본사 내년예산 반영 요청

### 전문인 투입·각종 편의시설 등 계획

조계종의 교구별 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해 기획예산처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안 편성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교구본사는 응주사, 선홍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금산사 등 10곳. 이중 선홍사와 금산사는 치매치료가 가능한 실버전문요양시설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기획예산처를 통과하면 올 11월 국회 예산심의의를 통과하는 일단 남게 된다.

이 사업은 요양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교구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노노노노나 거동이 불편한 스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교구 본사 지역 내 일반 노인들도 수용해 지역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은 교구별 실정에 맞춰 건립된다. 280평에서 300여 평 규모에 50~70여명 거거가 가능하다. 건립비용 중 50%는 중앙정부, 20%는 광역자치단체, 25%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찰 자체 부담이다. 운영비용은 조계종에서 펼치고 있는 '자비의 보령금 나눔 운동' 등을 통해 충당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교구별 노인복지시설은 속소 외에도 의무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실, 오락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복지사, 전담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이 노스님들의 편의를 돕게 된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 반영작업을 추진해 연차적으로 24교구 본사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말사도 건립 부지만 확보하면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9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조계종 원로스님들의 노후복지 뿐만 아니라 종교계 복지문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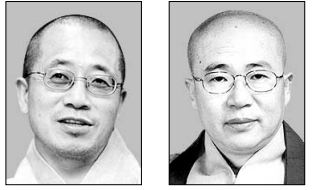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총무원, 본사, 사회

복지재단 공동으로 전문간병지원 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중풍, 치매, 임종환자 간호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수경·종광 스님 국립공원위원 위촉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사진 왼쪽)과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이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선임위원에 위촉됐다. 스님들은 2006년 7월까지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을 최종 심의할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최재천 교수(서울대), 서지은 교수(우석대), 손재용 부위원장(북한산주민주민대책위원회), 강혜순 교수(성신여대) 등도 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유신 기자

### 조계종 특별한 심사 미필·제적 말소자 대상

조계종이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 및 승적말소자에 대해 특별한 심사를 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신고인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02)2011-1701 남동우 기자

## 몽골국립대 한국어과에 장학금

### 태고종, 10명에 전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포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도 이에 적극 가담하고 나섰다.

태고종 대표단은 7월 23일 몽골 국립대학을 방문, 한국어과 재학생 10명에게 1년간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체렌담바

몽골 대통령 종교특보와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의 불교교류와 몽골불교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태고종 대표단은 몽골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몽골불교의 활동과 승려교육 및 수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불교교류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박봉영 기자

# "나는 불자 - 뚜렷하게 알았어요"

## 1200여 청소년 속리산서 신나는 3박4일

### 제7회 파라미타 청소년전국연합캠프

"전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안, 가슴 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심(佛心)이 보다 분명하고 뚜렷해진 느낌이에요."

8월 4~7일 충청북도 속리산 유스타운. 전국에서 모인 1200여명 청년동지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열연 구도열과 해박한 웃음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한껏 날려버렸다. 바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의 푸른 마을 밝은 꿈을 위한 캠프 '제7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는 각 지부별 활성

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중앙에서 격년제로 개최했던 것을 올해부터 각 지부별 순회 개최 형식으로 매년 진행하기로 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문수·보현·관음·미륵 분단으로 나눠져, 담당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연꽃 만들기, 사경체험 등의 신행활동과 국립공원생태탐사, 물놀이활동 등의 과정활동, 법주사 답사 및 예불·발우공양 체험 등의 답사활동, 모험활동, 산행 등의 신행활동 등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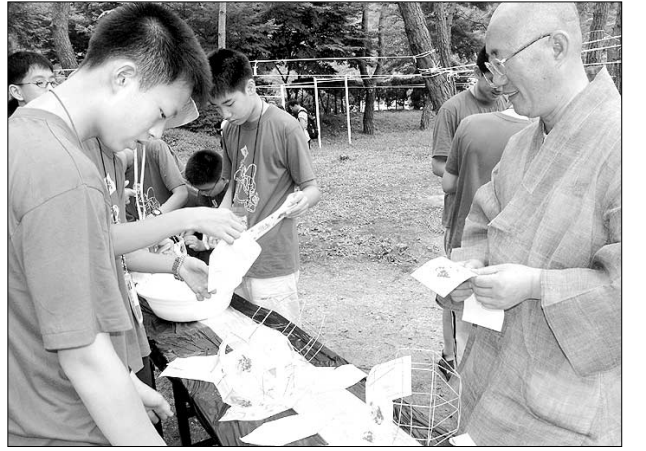
"발우공양은 평등정신과 절

약, 공동, 복덕, 공양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수행의 근간입니다."

답사활동을 위해 법주사를 찾은 아이들은 강인 학인스님들의 설명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로 체험해보며, 발우공양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처음 발우공양을 해봤는데, 스님이 설명하신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조예실, 전북 금산중 3년)

같은 시간, 수련관 곳곳에서는 사경, 탁본, 전통등만들기, 가람만들기 등 신행활동과 과정활동이 펼쳐져 보다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장 원택 스님과 함께 연등을 만들어 즐거워하는 청소년들.

있도록 도왔다.

특히 '참여와 화합의 벽 그리기' 행사는 아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만남과 화합, 평화와 통일 등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을 서울 정계천 '참여와 화합의 벽'에 장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기 때문.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은 자연을 나타내는 8가지 색깔을 이용해 새색과 산·물란 등의 자연모습, 여러 직업의 사

람들이 열차안과 환히 웃는 모습 등을 그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화합의 중요성 등을 저절로 익히고 있었다.

"지금 표현하는 세상은 이 그림처럼 순바닥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처럼 자비와 평등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황정은, 평택 청담정보통신고 1년)

법주사=김은경 기자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 특별기도

-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3]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7일간)

### 금주익발원

### [새벽첫송-1]

장엄스런 이종소리 온법계에 두루하여 철위산은 무너지고 유명계도 밝아져라 삼악도와 온갖지옥 그고통이 사라지고 일체중생 모두함께 바른깨침 이루어라 청정하고 거룩하신 비로자나 교주시며 연꽃으로 장엄하신 자애로운 세존께서 보배처럼 고귀하신 그 말 씀 언설하고 진주처럼 영롱하신 크신진리 펼치시니 티끌마다 들어가고 세계마다 원용하신 십조구만 오천에다 마흔여덟 글자로써 일승원교 크나큰 대방광불 화엄경에 두손모아 마음모아 지성귀의 하나이다 과거현재 미래불의 그세계를 알고픈가 법계성을 관찰하라 일제가다 유심조라

파지옥진연 : 너무 아따 시지남 삼막삼듯다 구치남 올 아자나 바바시 지리 지리 홀